

이 땅의 새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새해에 들어와 첫 3일동안에 수백만kWh의 전력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는데 이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강철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20t산소전로건설공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때 2.8직동청년탄광에서도 상층별비들이 기운차게 용을 쓸 때마다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있다.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변역의 진군길을 힘차게

# 신심과 희망에 넘쳐

달려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떨쳐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공화국은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는 특출한 성과가 이

룩되었다.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적도태가 강화되고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분의 많은 공장들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기계공업부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형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고 농업부분에서 다수확농장

과 작업반대렬을 높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한 투쟁속에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과학문화전선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변혁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17년을 긍지높이 추억하며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신이 더

욱 굳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로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양향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휘황히 밝혀져있다.

2018년에 공화국은 또 하나의 승리의 년표를 자랑스럽게 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흥 범 식

# 주체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찬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뜻깊은 계기들에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끼르키즈 엘》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통해 자기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전세계에 과시하고있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이 혼연일체는 그 누구도 허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하면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그 누구도 주체조선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리치며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일심단결로 굳건한 주체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승리의 장쾌한 축포를 기쁨속에 바라보는 각계층 군중들

평양의 청춘거리 체육촌에 있는 태권도전당에는 민족정통무도발전을 위하여 기울인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와 심혈 그리고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에게 배우신 송고한 믿음과 사랑의 이사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2002년 5월 병약한 한 로인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리였다. 불치의 병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을 힘겹게 가누는 로인은 태를 묻은 고국에 묻히리라는 소망을 품고 고국땅을 찾은 최홍희선생이었다.

그는 1918년 11월 함경북도 화대군의 궁벽한 산간벽지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서예에 눈이 뵈던 그는 시골생활에서 벗어나 신학문을 닦으려고 일본에서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학업도중 그는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학도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반일학도병무장대를 맺고 거사를 준비한 탓에 검거되어 감옥생활도 하였다. 8.15와 함께 조국으로의 그의 귀향길은 인생의 키를 잘못 잡은 탓에 그해 10월 서울로 이어지였다. 남조선에서 《국군》에 들어간 그는 사단장으로 미군이 동맹한 조선전쟁에 뛰어들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내대였고 후에는 군단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잘못된 인생궤도를 놓고 통절히 회심을 하게 된것은 5.16군사쿠데라세력이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일본파의 굴욕적인 《국교정상화회담》을 강행추진하고있을것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독재권력은 예비역장성들의 회담지시서명을 거부하는 그를 모해하고 암암리에 제거하려고 책동하였다. 생사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그는 1972년에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대양건너 카나다로 이주하였다. 그는 이역땅에서 《카나다조국통일회》, 《배달민족회》 등을 맺고 신문 《배달신보》 발행인으로서 남

## 승고한 민족애와 동포애

# 태권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

조선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1979년 5월 12일은 그에게 있어서 지나온 생을 구획짓고 새로운 인간으로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신것이다. 멀리 해외에서 조국을 찾아온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포옹하신 주석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동포애의 따뜻한 정이 차넘치는 자리에서 주석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같이 손잡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군사독재 《정권》과 결별하고 해외에 나가 태권도로 민족의 일을 빛내이며 조국통일을 이바지하려는 애국심을 간직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계속하여 주석님께서서는 그에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하시였다. 주석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최홍희선생에게 있어서 자자구구 인생의 라침판으로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조국을 방문한 최홍희선생을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애국과 애국이 뒤엉킨 그의 인생행

로에서 불미한점은 백지화시키고 곡절많은 인생의 마음속상처를 깨끗이 가시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최홍희선생을 원형으로 한 속편을 창작하도록 하시여 그의 인생이 예술화복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총속에서 불우한 사나이로부터 복판은 행운아로 다시 태어난 최홍희선생은 오래동안의 정신적방황에서 벗어나 통일애국의 끝은 항로를 따라 인생의 노를 저어갈수 있었다.

1980년 9월 최홍희선생이 인솔한 태권도시범단은 조국에서 성황리에 시범출연을 하였다. 어느날 그를 만나시고 태권도시범출연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절찬을 들려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선생이 총재로 있으면서 국제태권도련맹을 세계적인가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킨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담긴 태권도에 깃든 최홍희선생의 재능과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재사로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그가 집필한 전 15권으로 된 《태권도 백과사전》을 조국에서 출판하도록 조치하시여 최홍희선

생이 평생소원을 풀도록 배려 해주시였다.

태권도에 대한 최홍희선생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우리 나라를 태권도모국으로 존엄떨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보살핌은 끝이 없었다.

주체79(1990)년 1월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선생이 조국에서 태권도관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친데 대하여 상기하시면서 아바트 한두체를 짓지 못하더라도 태권도관을 꼭 짓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후 태권도관을 세울 위치도 정해주시고 건물형성안도 일일이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태권도전당》이라고 현판 글까지 손수 써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1992년 9월 태권도전당이 건설되었다. 태권도에 평생의 뜻을 품었던 최홍희선생은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자기의 념원을

성취하게 되었다. 당사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태권도를 대중화, 생활화하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고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에 정연한 태권도보급체계가 세워지고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태권도운동이 활발해지고 태권도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세계의 5대륙과 많은 나라들에 널리 퍼급되어 세계적인 무도로 위력떨치게 되었다.

《태권도때문에 나의 인생은 싸워야 할 파란과 무릅싸야 할 모험도 많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살벌한 타향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기구한 운명에 있었지만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이 계시기에 영세속에 발자국을 남기려던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한 인간으로서 이 이상 흐뭇함과 즐거움을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주석님과 장군님이 계시여 오

늘의 최홍희가 있고 태권도가 있는것이다.》

생전에 최홍희선생이 태권도인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토로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홍희선생에게 베푸신 은총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최홍희선생이 배짱이 있고 립장이 있다고, 씨원씨원하고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도 하고 그의 언젠가 그가 병상에 몸져누워있을 때에는 최선의 치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귀한 약재도 보내주시였다.

인간의 참모습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끼다고 하였다.

2002년 6월 운명을 앞두고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련맹의 관계자들에게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자신이 다 받들지 못한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뜻을 태권도인들이 끝까지 실천해달라는 당부였다.

애국충신, 애국적무도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최홍희선생이다. 자기 인생에 한때 파란곡절은 많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 은총속에 인생의 옳은 길을 걸으며 애국지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무도인으로 생의 흔적을 남기였다.

하기에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는 정통태권도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각각께서 최홍희선생과 국제태권도련맹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정통무도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태권도전당이 보다 현대적으로 개건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제 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정통무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리 설

